

	한국사	Ⅲ.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27차시 : 농민운동과 노동운동	학번	
	임종일 T		이름	

★농민운동이 전개되다 : [소작쟁의]

- 1910's (①))으로 인해 농민들은 소작농 전략, 국외로 이주
 -1920's (②))으로 농민 몰락 가속화
 → 소작인 중심으로 '(③) '를 벌임.
 + (④))유입으로 농민을 옹호하는 단체들이 결성

-1920's 초반 농민들은

- 소작료 인하, 지세부담 전가반대, 소작권 이동 반대 등
 (⑤))을 요구하는 소작쟁의가 주를 이룸.

전국 각지의 동양척식주식회사 농장과 일본인 농장에서도 대규모 쟁의
 [대표적으로,]

1923, (⑥))에서 투쟁했고, 마침내 소작료를 낮춤

-1920's 중반 이후, 농민운동은 더욱 발전.

- 농민 의식은 높아지고, 자작농의 가입이 늘면서
 소작인 조합은 농민조합으로 개편

-1927, (⑦))의 지원으로 규모와 조직 면에서 발전

-일제의 탄압이 강화되면서 1930's 농민운동은

(⑧))와 연계하여 비합법적 조직인 (⑨))을
 중심으로 전개.

-1930's 중반, 일본 관공서 습격. but, 중일전쟁이후 일본이 강제로 봉쇄

★노동운동이 전개되다 : [노동쟁의]

- 식민지 공업화에 따라 공장이 늘어나면서 노동자도 증가
 -한국인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림.
 but, 낮은임금, 차별대우
 →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을 펼침.
 +사회주의가 보급되면서 여러 노동단체가 결성

-전반기, 노동자의 삶과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(⑩)) 성격

ex) 부산 부두 노동자 파업, 경성 인력거꾼 파업,
 경성 양화직공의 동맹휴업, 경성 노무여공 파업

-절정 : 1929, (⑪))에서 절정

1928, 석유회사인 라이징선에서 시작

1929, 1월, 원산지역 노동자 총 파업으로 이어짐.

*국외의 노동단체까지 원산 총파업에 격려와 지지 but, 실패

-1930's 일제의 통제가 강화되자 노동운동은 (⑫))와 연결된

비합법적 조직인 (⑬))의 형태로 전개

but, 중일전쟁 이후 탄압 본격화 → 노동운동은 줄어들.

암태도 소작 쟁의

오랫동안 맹렬히 싸워 오던 암태 소작 문제는 이사이 일단락을 마쳤다는데, 지주 문재철씨는 소작인회의 요구인 4할(40%)을 승낙하는 동시에 금 이천 원을 그 소작인회에 기부하기로 되었더라.

- " 동아일보", 1924. 9. 28. -

1920년대 농민의 상황

지주에 대한 소작인의 불평과 불만은 가는 곳 마다 없는 곳이 없다. 이전에는 지제도 지주 측에서 부담할 뿐만 아니라 소출을 반반씩 나누어 주는 반 분작을 마다하고 도조로 주기를 희망할 만큼 후했는데,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그 반 분작을 바랄 수도 없다고 한다. 너야 굶어 죽든 말든 내 배만 부르면 그만이라는 셈으로, 한번 매겨 놓은 도지는 수확이 좋든 나쁜든 조금도 감해 주지 않고 그대로 받아가는데, 작년 같은 흉년에도 불벼락 같이 받아갈 것을 받아가고야 말았다.

- " 동아일보", 1925. 2. 22. -

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지붕 위에 올라왔습니다. 나는 평원 고무 공장 사장이 이 앞에 와서 임금 감하의 선언을 취소하기까지는 결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. 끝까지 임금 감하를 취소치 않으면 나는 노동 대중을 대표하여 죽음을 명예로 알 뿐입니다. - " 동광 " 23호, 1931. 7. -

1931년 5월, 평양 평원 고무 공장 근로자 강주룡은 임금 삭감에 저항하여 평양의 을밀대 지붕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다. 이 사건은 당시 일제의 노동 착취와 노동 상황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일제의 착취와 수탈에 맞서 노동자와 농민은 지속적으로 저항하였다.